

亢害承制論에 대한 諸家說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

A study on all the theories about KangHaiChengZhiLun

Yun Chang-yeol*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Objectives : KangHaiChengZhiLun (亢害承制論; If Excess Brings Harm, Lifting Qi (承氣) Restrains) was originally a theory that explained how the realms of nature remain in harmony and equilibrium. It later became an important theory for clinical trial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explaining the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mechanism.

Methods : The researcher considered all the annotations and the original text of *SuWen*(素問), *LiuWeiZhiDaLun*(六微旨大論) and theories of medical practitioners who applied KangHaiChengZhiLun(亢害承制論) to their clinical trials.

Results & Conclusions : Wangbing (王冰) went with a theory that phenomena of Lifting Qi (承氣) take place in the realms of nature when Qi (氣) flourishes. In *XinJiaoZheng*(新校正), he wrote about two theories: one was that Six Kinds of Natural Factors (六氣) first work as the main Qi (本氣) but later bring about Lifting Qi. (終見下承之氣說); the other was that excessive Stagnation Qi (鬱氣) can be exploded and invite another accompanying Qi, Lifting Qi. (甚者兼其下承之氣說) Liuwansu (劉完素) had a theory that if Six Kinds of Natural Factors go disproportionately excessive, it becomes accompanied by imaginary Qi (假象) that conquers self. (反兼勝己之化說) Wanglü (王履) maintained that Lifting Qi usually works as a means to prevent Six Kinds of Natural Factors (六氣) from becoming rampant; but when Six Kinds of Natural Factors become overly excessive, Lifting Qi restrains them in order to maintain equilibrium. (防之與克勝說) Yutuan (虞搏) explained that since Excessive Qi (亢氣) does damage to the mother of Lifting Qi, Lifting Qi restrains Excessive Qi to protect Original Qi (元氣), its mother. (護救承者之元氣說) Gongtingxian (龔廷賢) was in favor of two theories: one argued that causes and symptoms of a disease differ from each other. (體用不同說); the other said that diseases are naturally cured if the patient finds out the time when Lifting Qi gains strength. (得承之時自愈說) Mashi (馬蒔) had a theory that Lifting Qi is generated when Six Kinds of Natural

Factors are prosperous and reveals itself when its season comes. (極則生承氣 至本位著說) Zhangjiebin (張介賓) asserted that when Six Kinds of Natural Factors are thriving, Lifting Qi, as a restraining force, is generated to disperse the thriving natural factors and leads to a new one. (前之退而後之進說) Zhangqi (張琦)'s argument was that if Lifting Qi restrains the main Qi, a son of the main Qi is generated and every four season goes in harmony. (承氣制則生化說) Hemengyao (何夢瑤) had an argument that a son of the restrained Qi succeeds to its father and later achieves equilibrium by restraining Excessive Qi. (被克承父 制之平衡說)

Key Words : harmony (造化), equilibrium (平衡), lifting qi (承氣), restriction (相克), six kinds of natural factors (六氣).

1. 緒 論

『素問·氣交變大論』에서 “夫五運之政은 猶權衡也니 高者를 抑之하고 下者를 舉之하며 化者를 應之하고 變者를 復之하나니 此生長化成收藏之理며 氣之常也니 失常則天地四塞矣(오운의 작용은 저울과 같이 평형을 이루니 태과한 것은 역계를 하여 내리고, 불급한 것은 도와서 올려주고 태과불급이 없는 정상적인 氣化는 정상적으로 감응하고 이상적인 氣化는 그 본래 모습을回復하게 하나니 이것이 만물이 생장화수장하는 과정 속에서의 자연적인 이치이며 四時之氣의 정상적인 현상이니 이러한 정상적인 규율이 파괴되면 천지의 기운이 꼭 막혀 不通하게 된다.)”¹⁾고 하였다. 이 말은 자연계의 기후는 자율적으로 平衡을 유지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四時의 變化는 五行의 相生順序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相生이 영원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五行의 相克이 중요하게 作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尙害承制論이 있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尙則害하고 承乃制하나니 制

則生化하여 外列盛衰하고 害則敗亂하여 生化大病이라(六氣 중에서 하나의 기운이 尙盛하면 해치는 작용을 하고 이때 相承하는 기운이 尙盛한 기운을 이겨서 제압하니 克制작용을 하면 정상적인 生化가 유지되어 四時의 盛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尙盛하여 해치게 되면 變化작용이 깨지고 문란하게 되어 生化의 기틀이 무너져 大病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尙害承制는 尙則害承乃制의 준말이다. 이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六氣사이의 相承과 制約의 관계이다. 하늘의 六氣는 각각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기운이 정상적이면 만물의 生化에 有益하지만 太過하게 되면 만물의 生化를 손상시키게 된다. 六氣는 또 각각 자신이 勝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六氣가 盛極하게 되면 자기를 이기는 下勝之氣가 克制하기 때문에 尙則害承乃制라고 말한 것이다. 자연계의 기후는 相承과 制約의 관계를 통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조화와 안정의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부연설명하면 자연계의 기후는 태과와 불급에 따라 尙盛과 衰弱이 출현하지만 자율적인 기전이 작용하여 평형을 되찾고 이러한 변화가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尙害承制論은 자연계의 자율적인 平衡機轉이지만 한의학의 생리, 병리, 진단, 질병치료, 질병예방 등의 방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尙害承制의 이론을 연구하는 것은 질병치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82-42-280-2601

Email : yoony@du.co.kr

Received(26 April 2016), Revised(11 May 2016),

Accepted(12 May 2016).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9.

료, 用藥, 질병의 예후분석 등 임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역대의 의가들은 亢害承制에 대하여 많은 討論을 하였고 그 내용은 대단히 다양하면서도 다채롭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의학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각 의가들의 주장과 그 이론들의 의의를 살펴 보아 본 논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2. 이론의 발단

『素問·六微旨大論』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帝曰 善다. 願聞地理之應六節氣位하노니 何如오 岐伯이 曰 顯明之右는 君火之位也니 君火之右에 退行一步하면 相火治之하고 復行一步하면 土氣治之하고 復行一步하면 金氣治之하고 復行一步하면 水氣治之하고 復行一步하여 木氣治之하고 復行一步하면 君火治之라. 相火之下에 水氣承之하고 水位之下에 土氣承之하고 土位之下에 風氣承之하고 風位之下에 金氣承之하고 金位之下에 火氣承之하고 君火之下에 陰精承之니이다. 帝曰 何也오 岐伯이 曰 亢則害하고 承乃則하나니 制則生化하야 外列盛衰하고 亢則敗亂하야 生化大病이니이다.”²⁾

地理之應六節氣位에 대해 方葯中은 “地理는 땅에서 만물의 변화 상황을 가리킨다. 六節은 三陰三陽이고 氣는 風熱火濕燥寒의 六氣이다. 位는 三陰三陽의 六氣가 있는 위치와 순서를 가리킨다. 地理之應六節氣位라는 말은 하늘의 六氣와 땅의 사물의 변화현상 사이의 상응관계를 의미한다.”³⁾고 하였다.

張介賓은 “此下는 言地理之應六節이니 即主氣之靜而守位者也라 故曰 六位며 亦曰六步니 乃六氣所主之位也라(이 아래는 地理가 6절에 응하는 것을 말했으니 主氣가 고요하여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六位라고 했으며 또 六步라고도 하니 6기가 主하는 자리이다.”⁴⁾라고 하였다. 두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方葯中은 “땅위의 만물이 六氣의 變化에 어떻게 상응하고 있는가”를 물었다는 것이고 張介賓은 “主氣는 地氣임으로 매년 동일한 地氣六步의 方位와 時間이 어떻게 배합되는가”라를 물었다는 것이다. 王履는 醫經溯源集의 亢則害承制論에서 “自相火之下로 止陰精承之十二句는 言地理之應乎歲氣也라”⁵⁾고 하여 上六句를 歲氣로 보고 下六句인 下承之氣를 地理之氣로 본 듯하다.

顯明은 陽氣가 점차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으로 방위적으로 卯方이고 시간적으로는 春分이 되는데 春分 이후에는 낮이 점차 길어지고 기온이 점차 따뜻해지며 만물의 성장이 점차 무성해진다.

顯明之右 君火之右의 右에 대해 方葯中은 王氷의 說을 따라 모두 남쪽을 보면서 左右를 나눈 것이라⁶⁾ 하였다.

顯明之右 君火之位也부터 復行一步 君火治之까지는 主氣의 六步를 말한 것이다. 主氣의 六步는 初之氣는 厥陰風木으로 大寒에서 春分까지이고, 二之氣는 少陰君火로 春分에서 小滿까지이고, 三之氣는 少陽相火로 小滿에서 大暑까지이고, 四之氣는 太陰濕土로 大暑에서 秋分까지이고, 五之氣는 陽明燥金으로 秋分에서 小雪까지이고 終之氣는 太陽寒水로 小雪에서 大寒까지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相火之下 水氣承之부터 君火之下 陰精承之까지는 相火, 水位, 土位, 風(木)位, 金位, 君火의 아래에 위의 것을 制約하는 水氣, 土氣, 風氣, 金氣, 火氣, 陰精이 각각 相承하고 있어 五行(六氣)이 偏勝하지 않게 하여 生長化收藏의 生化作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한다는 것이다.

六位의 아래에는 그것을 克制하는 下承之氣가 밀착되어 따르면서 시시각각 그것을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五行은 지나치게 偏勝하는 현상이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132-133.

3) 方葯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92.

4)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826.

5) 王履. 醫經溯源集. 南通. 江蘇科技出版社. 1985. p.3.

6) 方葯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93.

Fig. 1. A picture of Six Kinds of Natural Factors taking turns in accordance with the 24 solar terms



出現할 가능성이 적다. 이것은 자연계가 자율적으로 안정을 지향하는 조절기능이다. 자연계에는 이러한 자율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는 조절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의 사물의 변화도 상대적인 안정 상태를 누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下文의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에 대한 이론과 해석에 대해서는 역대 주석가와 의가들의 설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亢害承制에 대한 諸家說

1) 王氷의 氣盛承氣象見(현)說

氣盛承氣象見說은 위에서 六氣가 盛하면 아래의 承하는 기운이 자연계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王氷은 相火之下 水氣承之에서부터 君火之下 陰精承之까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注를 달았다.

[相火之下 水氣承之] : 熱盛하면 水承하야 條蔓柔弱하고 溼潤衍溢하니 水象을 可見이라(열기가 성하면 水氣가 계승하여 가지와 덩굴이 부드럽고 연약해지며 축축해지고 물기가 넘치니 水氣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水位之下 土氣承之] : 寒甚하면 物堅하야 水水流澗하니 土象을 斯見이니 承下가 明矣라(寒氣가 심하면 만물이 견고하게 되어 물이 얼고 하천이 마르게 되니 土氣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으니 아래에서 계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土位之下 風氣承之] : 疾風之後에 時雨乃零이라 是則濕爲風吹하야 化而爲雨라(빠른 바람이 분 뒤에 때맞춰 비가 내린다. 이것은 濕氣에 바람이 불어 습기가 변해 비가 된 것이다).

[風位之下 金氣承之] : 風動하면 氣清하야 萬物이 皆燥하니 金承木下에 其象이 昭然이라(바람이 불면 기운이 서늘하여 만물이 다 건조해지니 金이 木아래에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金位之下 火氣承之] : 鍛金生熱 則火流金이니 乘火之上이 理無妄也라(쇠를 단련하면 火氣가 쇠에 흐르니 火가 위에서 탄다는 것이 이치가 망령됨이 없다).

[君火之下 陰精承之] : 君火之位에 大熱이 不行하니 蓋爲陰精이 制承其下也라(군화의 자리에는 대

열이 행하지 않으니 대체로 陰精이 그 아래에서 계승하여 制約하고 있기 때문이다).

王氷의 해석은 소박하다. 그는 六氣의 氣가 왕성하게 되면 그것을 克制하는 氣象이 아래에서 작용하기 시작하여 현상계에 드러나 平衡을 이루게 하니 이것이 天地造化의 大體라고 하였다⁷⁾. 왕빙의 주장은 항해승제론 연구의 초기단계로 자연계의 기후가 평형을 유지하는 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新校正의 終見(현)下承之氣說 및 甚者兼其下承之氣說

新校正은 송나라 인종 때 국가차원에서 학자들을 동원하여 王氷注에 대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이다.

終見下承之氣說은 六氣의 변화가 처음에는 本氣가 작용하다가 그 기운이 끝날 때가 되면 下承之氣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新校正에서는 六元正紀大論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注를 달고 있다.

[相火之下 水氣承之] : 少陽所至爲火生이라가 終爲蒸溽이라 하니 則水承之義를 可見이라. 又云少陽所至爲標風燔燎라가 霜凝이라 하니 亦下承之水氣也라⁸⁾.

[水位之下 土氣承之] : 太陽所至爲寒雪冰雹이라가 白埃라 하니 則土氣承之之義也라⁹⁾.

[土位之下 風氣承之] : 太陰所至爲濕生이라가 終爲注雨라 하니 則土位之下에 風氣承之而爲雨也라. 又云太陰所至爲雷霆驟注라가 烈風이라 하니 則風承之義也라¹⁰⁾. 이하의 내용은 생략하고자 한다.

少陽之氣가 와서 火가 生(火生)하고 회오리바람이 불고(標風) 기후가 타는 듯한 것(燔燎)은 정상적인 本氣의 작용이나 마지막에 濕熱이 작용(蒸溽)하

고 서리가 내리는 것(霜凝)은 下承하는 水濕과 水氣가 나타나 水克火하는 것이다. 太陽之氣가 와서 찬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우박이 내리는 것은 정상적인 本氣의 작용이나 땅위에 흰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것은 下承之氣가 나타나 土克水하는 것이다. 또 太陰之氣가 작용하여 濕이 생기고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다가 마지막에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것은 下承하는 木氣가 작용하여 木克土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本氣가 작용하다가 마지막에는 承氣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니 終見下承之氣라 말할 수 있다.

新校正에서는 「六元正紀大論」에 있는 다음 구절을 인용하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水發而雹雪하고 土發而飄驟하고 木發而毀折하고 金發而清明하고 火發而曠昧는 何氣使然고 曰氣有多少하고 發有微甚하니 微者는 當其氣어니와 甚者는 兼其下니 微其下氣면 而見可知也라하니 所謂微其下者는 卽此六承氣也라(水氣가 울체되었다가 폭발하면 우박과 눈이 내리고, 土氣가 울체되었다가 발작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고, 土氣가 울체되었다가 발작하면 나무가 훼손되고 부러지고, 金氣가 울체되었다가 발작하면 날씨가 청명하고, 火氣가 울체되었다가 발작하면 날씨가 어두워지는 것은 무슨 기운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까. 기백이 대답하였다. 오운의 기는 태과와 불급이 있고 발작하는 데에는 가법고 심함이 있으니 경미한 것은 그 本氣가 작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下承之氣를 겸하니 所承之氣를 관찰해보면 발작하는 정도의 微甚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下承之氣를 관찰한다는 것은 이 6 종류의 承氣를 말하는 것이다¹¹⁾).

위의 내용은 오운의 기가 울체되었다가 발작하면 그 기운이 폭발적으로 작용하여 下承之氣가 겸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土氣가 울체되었다가 발작할 때 바람이 부는 것은 木克土하는 것이요, 木氣가 울체되었다가 발작할 때 나무가 훼손되고 부러지는 것은 金克木하는 것이요, 金氣가 울체되었다가 발작할 때

7) 尹暢烈 外 二人. 현토완역 黃帝內經素問王氷注(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p.95-97.

8) 尹暢烈 外 二人. 현토완역 黃帝內經素問王氷注(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96.

9) 尹暢烈 外 二人. 현토완역 黃帝內經素問王氷注(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96.

10) 尹暢烈 外 二人. 현토완역 黃帝內經素問王氷注(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96.

11) 윤창열, 이남규, 김선호. 현토완역 황제내경소문王氷주(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98.

날씨가 청명한 것은 火克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운이 울체되었다가 발작하면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下承之氣가 겹해서 나타나 그 강한 기운을 억제하니 이를 甚者兼其下承之氣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終見下承之氣說과 甚者兼其下承之氣說 역시 자연계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자연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新校正의 이 2가지 내용은 亢害承制의 기전을 통해 왕빙과 같이 자연계가 평형을 유지한다는 것에 국한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후의 醫家들이 인체의 병리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데 중요 의의가 있다.

3) 劉完素의 反兼勝己之化說(反似勝己之化說)

劉完素는 亢害承制의 이론을 임상에 응용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亢害承制의 관계가 자연계의 정상적인 운동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이 된다고 인정하여 “夫五行之理는 甚而無以制之면 則造化息矣라”¹²⁾ 하였다. 이를 病機에까지 확대하여 五運 가운데 하나의 運이 過極하면 반드시 承制의 現象이 나타나게 되고 임상에서는 似是實非의 假象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그는 “五行之道는 實甚過極하면 則反似克其己者하니 是爲兼化라(오행의 원리는 실제에 있어 아주 지나치게 성하면 도리어 자기를 이기는 것과 같아지니 이를 겸화라고 한다).¹³⁾”라고 하여 反兼勝己之化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如春에 風木旺而多風하니 風大則反涼은 是反兼金化하여 制其木也오 大涼之下에 天氣反溫은 乃火化가 承于金也오 夏에 火熱極而 體反出液은 是反兼水化하여 制其火也오 因而濕蒸雲雨는 乃土化가 承于水也오 雨濕過極而兼熱風은 乃木化가 制其土也오 飄驟之下에 秋氣反涼은 乃金化가 承于木也오 涼極而萬物反燥는 乃火化가 制其金也오 因而以爲冬寒은 乃水化가 承于火也오 寒極則 水凝如地는 乃土化가 制其水也오 凝凍極而起東風은 乃木化가 承土而周歲也니 凡不明病之標本者는 由未

知此變化之道也라(예를 들어 봄에는 風木이 왕성하고 바람이 많이 부니 바람이 세면 도리어 서늘해지는 것은 도리어 金化를 겸해서 그 木氣를 제약하는 것이다. 크게 서늘해진 뒤에 날씨가 도리어 따뜻해지는 것은 火가 생겨나 金氣를 계승하는 것이다. 여름에 火氣가 작용하여 몹시 더울 때 몸에서 도리어 땀이 나는 것은 도리어 水化를 겸해서 그 火氣를 제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습기가 찌서 구름 끼고 비내리는 것은 土가 생겨 水氣를 계승하는 것이고 비와 습기가 지나칠 때 뜨거운 바람을 겸하는 것은 木이 생겨나 土氣를 제압하는 것이다. 바람이 크게 분 뒤에 가을 날씨가 도리어 서늘해지는 것은 金이 생겨 木氣를 계승하는 것이고 몹시 서늘할 때 만물이 도리어 건조해지는 것은 火가 생겨 金氣를 제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겨울의 추위가 오는 것은 水가 생겨 火氣를 계승하는 것이요 몹시 추우면 물이 땅처럼 뚫어지는 것은 土가 생겨 그 水氣를 제압하는 것이다. 뚫어지는 것이 심할 때 동풍이 부는 것은 木이 생겨 土를 계승하여 일년의 변화를 마치고 새로 시작하니 무릇 병의 표본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러한 변화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⁴⁾”라고 하였다.

이것은 유완소가 亢害承制의 이론을 가지고 자연계의 春夏秋冬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反兼勝己之化는 자연계의 본래 있는 질서이고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만 六氣가 정상을 유지하여 기후가 太過나 不及에 이르지 않고 만물도 쉬지 않고 生化作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이론을 가지고 病機를 해석하는데 까지 확대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病濕過極則爲瘧은 反兼風化制之也오 病風過極則反燥하여 筋脈動急은 反兼金化制之也오 病燥過極則煩渴은 反兼火化制之也오 病熱過極而反出五液하며 或爲戰栗惡寒은 反兼水化制之也라. … 然而兼化者는 乃天機造化 抑高之道니 雖在渺冥恍惚之間이라도 而有自然之理라(습병이 지나칠 때 경련이 오는 것은 도리어 風化를 겸해서 억제하는 것이요, 風病이 지나칠 때 도리어 건조하여 근육이 당기는 것은 도리어 金

12)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76.

13)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544.

14)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76.

化를 겸해서 억제하는 것이다. 燥病이 지나칠 때 煩渴症이 있는 것은 도리어 火化를 겸해서 억제하는 것이요, 熱病이 지나칠 때 도리어 五液이 나오며 흑전윤오한이 생기는 것은 도리어 水化를 겸해서 억제하는 것이다. … 그러나 兼化和 같은 것은 天機造化의 올라간 것을 억제하는 원리이니 비록 알 수는 없을 지라도 자연의 이치가 있는 것이다.”¹⁵⁾

여기서 우리는 五運六氣가 偏亢할 때 勝己之化의 假象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濕氣過甚而見筋脈強直”은 병의 本質은 濕氣이나 筋脈強直은 假象으로 木克土의 기전인 것이다. 惡寒 戰慄은 寒病의 本質이나 熱氣가 심할 때 寒戰振栗 등의 假寒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는 “火極해야 反兼水化制之”하는 기전인 것이다. 寒邪가 지나치게 심할 때 堅痞腹滿이 나타나는 것은 “寒極則血脈凝滯하여 而反兼土化制之라 故로 堅痞而腹滿也라”¹⁶⁾ 하였다. 또 戰慄의 증상에 대해서 “此由心火熱甚하여 亢極而戰이니 反兼水化制之라”¹⁷⁾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兼化의 증상은 相兼同病의 兼化가 아니고 一種의 假象임으로 病機를 분석하고 치료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그는 “其爲治者는 但當瀉其過甚之氣하여 以爲病本이오 不可反誤治其兼化也라. … 夫五行之理는 甚而無以制之면 則造化息矣라(치료를 하는 사람은 단지 마땅히 過甚한 氣를 사하여 병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지 도리어 그 兼化를 誤治해서는 안된다. … 오행의 이치는 기운이 過甚한데 억제함이 없으면 조화의 작용이 그치게 된다).”¹⁸⁾라 하였다. 또한 “木極似金하고 金極似火하고 火極似水하고 水極似土하고 土極似木이라 故로 經曰 亢則害 承乃制라하니 謂己亢極하면 反似勝己之化라 俗流未知 故로 認似作是하고 以陽爲陰하니 失其本意라 經所謂誅罰無過를 命曰大惑이라(木이 亢極하면 金과 같고 金이 亢極하면 火와 같고 火가 亢極하면 水와 같고 水가 亢極하면 土와 같고 土가 亢極하면 木과 같아진다. 따

라서 내경에서 亢則害 承乃制라 하였으니 내가 亢極하면 도리어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변화됨을 이른다. 세속의 의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옳다고 하고 陽을 陰이라 하니 그 근본 뜻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내경에서 이른바 허물이 없는 것을 치고 별주는 것을 大惑이라 한 것이다).”¹⁹⁾라고 하였다.

자연계에서 六氣가 盛할 때 그것을 克하는 기상이 저절로 나타나듯 인체에서도 五運 또는 六氣가 亢極하면 이를 억제하는 기전이 저절로 나타나 均衡을 유지하려고 하니 의사는 本質과 假象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완소는 亢害承制를 처음으로 인체의 병리를 설명하는데 도입하여 진단과 치료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후 항해승제이론을 인체에 활용하게 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다.

4) 王履의 防之與克勝說

王履는 亢則害承乃制論을 지어 亢害承制의 이론을 크게 闡發하였다. 먼저 亢害承制論에 대한 그의 일반적인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嘗觀夫陽陰五行之在天地間也컨대 高者를 抑之하고 下者를 舉之하며 强者를 折之하고 弱者를 濟之하니 蓋莫或使然이로대 而自不能不然也라. 不如是면 則高者는 愈高하고 下者는 愈下하며 强者는 愈强하고 弱者는 愈弱하여 而乖亂之政이 日以極矣라니 天地가 其能位乎아 雖然이나 高也, 下也, 弱與强也도 亦莫或使然이로대 而自不能不然也라. 故로 易也者는 造化之不可常也니 惟其不可常 故로 神化를 莫能以測하고 莫測故로 不息也니 可常則息矣라. 亢則害承乃制者는 其莫或使然이로대 而自不能不然者歟아(음양오행이 천지간에서 작용하는 것을 관찰해보면 높은 것은 억제하고 낮은 것은 들어 올려주고 강한 것은 꺾고 약한 것은 구제해 주니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없되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지 않다면 높은 것은 더욱 높아지고 낮은 것은 더욱 낮아지고 강한 것은 더욱 강해지고 약한

15)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76.

16)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77.

17)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56.

18)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76.

19)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83.

것은 더욱 약해져서 어그러지고 혼란된 상황이 나날이 심해지게 될 것이니 천지가 능히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높아지고 낮아지고 약하고 강해지는 것 또한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저절로 능히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造化의 과정 속에서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 오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령스런 변화는 헤아릴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쉬지 않으니 일정하다면 그치게 된다. 亢則害承乃制는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리라.”²⁰⁾

여기에서 王履는 자연의 변화는 태과와 불급이 없을 수 없고 또한 이러한 태과불급을 조절하여 항상 平衡을 유지하는 자율적인 기능이 자연계에는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그의 독창적인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承은 猶隨也라 然이나 不言隨而曰承者는 以下言之면 則有上奉之象이니 故曰承이라. 雖謂之承이나 而有防之之義가 存焉하니라. 亢者는 過極也오 害者 害物也오 制者는 克勝之也라. 然이나 所承也가 其不亢 則隨之而已라 故로 雖承而不見이라가 既亢 則克勝以平之하여 承斯見矣라 然而迎之에 不知其所來하고 迹之에 不知其所止라(承은 따른다는 뜻과 같다. 그러나 따른다고 말하지 않고 承이라고 말한 것은 아래에서 말하면 위를 받들고 있는 모습이니 그래서 承이라고 말한 것이다. 비록 承이라고 말했지만 기운이 亢盛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이다. 亢이라는 말은 몹시 지나친 것이고 害라는 말은 만물을 해친다는 것이고 制라는 말은 상극작용을 하여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所承之氣는 本氣가 亢盛하지 않으면 따라만 갈 뿐이다. 따라서 비록 아래에서 承하나 나타나지 않다가 亢盛하게 되면 相克하여 이겨서 平衡을 이루어 承하는 것이 비로소 나타난다. 그러나 맞이해도 그 오는 곳을 알 수 없고 자취를 더듬어도 그 그치는 바를 알 수가 없다).”²¹⁾

그의 주장의 핵심은 防之와 克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防之라는 말은 六氣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는 亢盛하지 않도록 예방작용을 하고 克勝이라는 말은 六氣가 過亢하면 下勝之氣가 相克작용을 통해 이겨서 平衡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亢則害 承乃制之道는 蓋無往而不然也라 惟其無往而不然 故로 求之于人 則五臟更相平也라. 一臟不平이면 所不勝이 平之하여 五臟更相平하니 非不亢而防之乎아 一臟不平에 所不勝이 平之면 非既亢而克承之乎아 姑以心火而言이면 其不亢 則腎水雖心火之所畏나 亦不過防之而已오 一或有亢이면 卽起而克承之矣니 餘臟皆然이라(亢則害承乃制의 원리는 어디에서도 그렇지 아니함이 없다. 오직 어디를 가도 그렇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구해본다면 오장이 서로 평형을 유지한다. 하나의 臟이 고르지 않으면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고르게 해서 오장이 서로 평형을 이루게 하니 亢盛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臟이 고르지 않음에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고르게 한다면 이미 항성하게 된 것을 克勝하는 것이 아닌가. 먼저 心火를 가지고 말해 보면 亢盛하지 않으면 腎水는 비록 心火가 두려워하는 존재지만 또한 防之하는데 불과할 뿐이요 만일 혹시라도 亢盛하면 즉시 일어나 心火를 克勝하니 나머지의 臟도 모두 그러하다).”²²⁾

이 말은 생리적일 때는 견제의 작용만 하지만 병리상태로 바뀌게 되면 相克작용을 통해 平衡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王履는 마지막 亢則害에서부터 生化大病까지의 6句에 대해서도 자세한 해석을 하였는데 독창적인 견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亢則害 承乃制 2句는 태과한 것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制生則化에서 生化大病까지의 4句는 제약이 있을 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과 제약이 없을 때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말한 것이다. … 制生則化는 制則生化로 고쳐야 된다. … 위의 2句는 단지 亢盛하면 해치고 해치면 억제한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고 다음 4句는 해치고 제약하는 것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 制則生化는 바로 下文의 害則敗亂과 상대되니 말의 이치가 모두 순조로와 자세히

20) 王履. 醫經溯洄集. 南通. 江蘇科技出版社. 1985. p.3.

21) 王履. 醫經溯洄集. 南通. 江蘇科技出版社. 1985. pp.3-4.

22)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된다. 制則生化는 억제함이 있으면 六氣가 亢盛함에 이르지 않아 平氣를 이루고 平氣가 되면 만물이 생하고 생하여 변화가 무궁하게 된다. 化는 생한 것이 盛하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生字를 化字보다 앞에 놓은 것이다. 外列 盛衰라는 것은 六氣가 分布하여 主治할 때 교대로 盛하고 衰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므로 外列이라고 한 것이다. 害則敗亂 生化大病라고 한 것은 이미 亢盛하여 해치되 제약함이 없으면 무너지고 질서가 깨져서 혼란스러운 기후 변화가 행해짐을 말한다. 무너지고 질서가 깨져 혼란스러운 기후변화가 행해진다면 비정상적인 것이 극에 이르고 재앙이 심한 것이 되니 만물이 병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의 生化는 생겨나서 자란 것을 말하니 만물을 말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극에 이르고 재앙이 심하기 때문에 大病이라고 말한 것이다. 위의 生化는 造化의 작용으로 말한 것이고 아래의 生化는 萬物로 말한 것이다. 사람으로 논해보면 制則生化는 원기가 두루 흘러 一身을 滋潤하고 營養하여 오장육부 사지백해구규가 모두 이 기운을 받아 動靜云爲하는 주인이 되는 것과 같고 生化大病은 邪氣가 만연하여 정기가 모산되어 오장육부 사지백해구규의 모든 기관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²³⁾

王履의 해석에 의거하여 “亢則害하면 承乃制하니 制則生化하여 外列 盛衰하고 害則敗亂하여 生化大病이라”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六氣가 亢盛하여 만물을 해치면 下勝之氣가 억제하니 억제하면 六氣가 平氣를 이루어 만물이 정상적으로 생겨나고 변화하여 六氣가 정상적으로 교대하여 盛하고 衰함을 드러낸다. 六氣가 亢盛하여 만물을 해치되 제약함이 없으면 비정상적인 기후변화가 이르고 재앙이 생겨 만물이 크게 병들게 된다.”

평소에 太過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주장은 明代의 吳昆도 그 說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六氣는 各專一令하고 專令者는 常太過故로 各有所承하니 所以防其太過하여 不欲其亢甚爲害也라(六

氣는 각각 하나의 기후를 주장하고 하나의 기후를 주장하면 항상 태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承하는 기운이 있으니 태과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亢極해서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²⁴⁾

왕리는 항해승제론을 종합정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하나의 이론으로써 자리 잡게 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虞搏의 護救承氣之元氣說

虞搏은 『醫學正傳』의 或問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制者는 制其氣之太過也오 害者는 害承者之元氣也라 夫所謂元氣者는 總而言之면 謂之一元이오 分而言之면 謂之六元이라 一元者는 天一生水하야 水生木하고 木生火하고 火生土하고 土生金하고 金復生水하야 循環無端하야 生生不息이라 六元者는 水爲木之化元이오 木爲火之化元이오 火爲土之化元이오 土爲金之化元이오 金爲水之化元이니 亦運化而無窮也라 假如火不亢이면 則所承之水가 隨之而已어니와 一有亢極하면 則其水起以平之니 蓋恐害吾金元之氣니 子來救母之意也라(制라는 것은 기운이 태과한 것을 억제하는 것이고 害라는 것은 承하는 것의 元氣를 해치는 것이다. 이른바 元氣라는 것은 총괄해서 말하면 一元이고 나누어 말하면 六元이다. 一元은 天一生水하야 水生木하고 木生火하고 火生土하고 土生金하고 금이 다시 水生하야 끝없이 순환하여 만물을 생하고 생하여 쉬지 않는 것이다. 六元은 水는 木을 생하는 근원이 되고 木은 火를 생하는 근원이 되고 火는 土를 생하는 근원이 되고 土는 金을 생하는 근원이 되고 金은 水를 생하는 근원이 되니 또한 운행과 변화를 무궁하게 한다. 가령 火가 亢盛하지 않으면 所承之水가 붙어서 따를 뿐이지만 만일 亢極하면 水가 일어나 고르게 하니 나의 金의 元氣를 해칠까 두려워한 것이니 자식이 와서 어머니를 구하는 뜻이다.”²⁵⁾

護救承氣之元氣라는 말은 下承之氣가 자신의 母인 元氣를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말이다. 위에서 火

23)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3-5.

24)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283.

25)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3.

를 예로 들었으니 金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보면 金位之下에 火氣承之한다. 金氣가 亢極하면 金克木을 하여 木氣를 해치게 되고 이때 下承하는 火氣가 火克金을 하여 金克木을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木氣가 바로 火의 元氣(母氣)가 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元氣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相克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亢害하였을 때 왜 반드시 承制 작용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배경을 밝힌 내용으로 중요 의의가 있다.

6) 龔廷賢의 體用不同說과 得承之時自愈說

龔廷賢은 『壽世保元』의 亢則害承乃制體用說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原夫木極似金하고 火極似水하고 土極似木하고 金極似火하고 水極似土컨대 如風木爲病에 掉眩甚則 肢體拘攣이라가 固勁而不能動이니 動極靜也라 火之太過 則燬木金溶하니 人爲渴汗이라 土極之病은 肉 膈筋惕하고 慢驚癱瘓之類니 靜極動也라 金暴斂則反熱하고 水極則冰凝如石하며 人病則收引癱結이라 時工이 昧知陰陽生殺之機하야 不究火亢則害陰金하고 症出戰慄惡寒이라(木이 極甚하면 金과 같아지고 火가 極甚하면 水와 같아지고 土가 極甚하면 木과 같아지고 金이 極甚하면 火와 같아지고 水가 極甚하면 土와 같아진다는 것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風木이 병들어 흔들리고 어지러움이 심하면 사지가 당기고 경련이 오다가 굳게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니 動極하여 靜하게 되는 것이다. 火가 태과하면 나무를 태우고 쇠가 녹으며 사람은 갈증이 나고 땀이 난다. 土가 極甚한 병은 근육이 놀란 듯이 뛰고 떨리며 만경풍과 계종 등의 종류니 靜極하여 動하게 되는 것이다. 금이 갑자기 수렴하면 도리어 熱이 나고 水가 極甚하면 돌처럼 얼음이 얼고 사람이 병들면 수축하여 당기고 소변불리가 오고 멍치게 된다. 의사들이 음양생殺의 기를 알지 못해 火가 亢極하면 陰金을 해치고 戰慄惡寒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연구하지 않는다).”²⁶⁾

위의 내용은 하나의 기운이 亢極하면 이를 억제

하기 위하여 亢極한 기운을 克하는 증상이 저절로 나오니 근본원인이 되는 體와 假象의 증상인 用을 정확히 구별한 다음 치료에 임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치법 원리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木이 亢極하면 土를 해치고 土가 木의 克害를 받으면 잘 먹지를 못한다. 木은 曲直하는 성질이 있고 曲直은 酸味를 만들기 때문에 膈噎, 中滿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木의 아래에서 所承하는 것은 肺金이고 土의 子이다. 肺金은 主氣하고 氣는 陽에 속하고 陽의 운행은 굳세기 때문에 播敷하고 運化하는 기능은 氣의 힘이다. 肺金과 대장은 傳送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지금 木이 亢極하면 侮金하고 害土하니 반드시 土의 子인 金氣를 도와주어 튼튼하게 하면 능히 木之過를 제압할 수 있다. 따라서 치법은 마땅히 肺金之氣를 도와서 補益시키면 木은 고르게 되고 土는 보존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속의 의사들은 도리어 氣를 耗散시키는 약을 쓰니 土가 더욱 쇠약해져서 木이 더욱 克을 하게 하니 정말로 애석한 일이다.”²⁷⁾

龔廷賢은 承乃制의 원리에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如火亢 可害其肺金하야 金受火剋之極病 則惡寒戰慄 而發晚熱咳渴이라가 直俟夜半之後하야 氣血傳過肺金하면 得微汗方解하니 此係承乃制之義也라(만약 火가 亢盛하여 肺金을 해쳐서 金이 火의 克함을 받는 것이 극심하여 병이 되면 惡寒戰慄의 증상이 있고 저녁 때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며 갈증이 생겼다가 곧장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려 氣血이 전달되어 肺金을 지나게 되면 약간의 땀이 나면서 병이 나오니 이것은 承乃制의 뜻과 연관된 것이다).”²⁸⁾

위의 내용은 火가 亢極하여 火克金을 하고 火極似水하여 오한 전율의 증상이 있을 때 火의 下承之氣가 水이니 한밤중인 亥子時가 되면 자연적으로 水克火가 되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承氣가 작용하는 시간에 병이 저절로

26) 龔廷賢. 壽世保元. 서울. 도서출판 醫聖堂. 1993. pp.35-36.

27) 龔廷賢. 壽世保元. 서울. 도서출판 醫聖堂. 1993. p.36.

28) 龔廷賢. 壽世保元. 서울. 도서출판 醫聖堂. 1993. p.36.

나을 수 있다는 것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항해승제이론을 보충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7) 馬蒔의 極則生承氣 至本位著說

馬蒔는 尙害承制論의 本文에 대해 다음과 같이 注釋을 달고 있다.

“六氣之下에 各有所制之氣 承之者是 蓋五行之氣는 一極則一生하여 而循環相承하여 無一息間斷也라 相火之下에 水氣承之者는 夏相火極에 水生承之하여 從微漸化라가 至冬著也라 水位之下에 土氣承之者는 冬水極에 土生承之하여 從微漸化라가 至長夏著也라 土位之下에 木氣承之者는 長夏土極에 木生承之하여 從微漸化라가 至春著也라 木位之下에 金氣承之者는 春木極에 金生承之하여 從微漸化라가 至秋著也라. 金位之下에 火氣承之者는 秋金極에 火生承之하여 從微漸化라가 至夏著也라 君火之下에 陰精承之者는 夏君火極에 陰精承之하여 從微漸化라가 至冬著也니 其義與陰陽家水胎于午 金胎于卯等說로 大同小異하니 而皆循環相承以爲胎也라(육기의 아래에 각각 제압하는 氣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五行之氣는 하나가 극한 상태에 이르면 하나의 기운이 생겨서 순환하고 서로 계승하여 한 순간도 끊어짐이 없다는 것이다. 相火之下에 水氣承之라는 말은 여름에 相火가 왕성할 때 水氣가 생겨 계승하여 미약한 것이 점차 자라 겨울에 이르러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水位之下에 土氣承之라는 말은 겨울에 水氣가 왕성할 때 土氣가 생겨 계승하여 미약한 것이 점차 자라 長夏에 이르러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土位之下에 木氣承之라는 말은 長夏에 土氣가 왕성할 때 木氣가 생겨 계승하여 미약한 것이 점차 자라 봄에 이르러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木位之下에 金氣承之라는 말은 봄에 木氣가 왕성할 때 金氣가 생겨 계승하여 미약한 것이 점차 자라 가을에 이르러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金位之下에 火氣承之라는 말은 가을에 金氣가 왕성할 때 火氣가 생겨 계승하여 미약한 것이 점차 자라 여름에 이르러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君火之下에 陰精承之라는 말은 여름에 君火가 왕성할 때 陰精이 생겨 계승하여 미약한 것이

점차 자라 겨울에 이르러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그 뜻이 陰陽家의 水氣가 午에서 受胎되고 金氣가 卯에서 受胎되는 등의 說과 대동소이하니 모두 순환되는 가운데 相承하는 氣가 受胎되는 것이다.”²⁹⁾

極則生承氣 至本位著라는 말은 하나의 기운이 자기의 계절을 만나 왕성할 때 下承之氣가 생겨 자라다가 역시 자기의 계절을 만나 그 기운이 크게 드러난다는 뜻인데 相克을 통해 平衡을 유지한다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 이유는 本氣가 尙極하면 그 즉시 下承之氣가 克制를 하여 平衡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데 極할 때 생긴 미약한 기운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尙害承制는 常道와 變道의 모두를 아우르는데 馬蒔의 주석은 常道에 치우쳐 있다. 그렇지만 本文이 主氣의 규칙적인 변화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 說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水胎于午 金胎于卯 등은 난경 40難의 水生于申, 金生于巳 등과 연관시켜 主氣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는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馬蒔는 尙則害 承乃制 制則生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에 대해 “言六位之氣가 過極則必害作하고 承氣가 乃生于下 制之하여 使不過也라 故로 制則從微化著하여 承者는 自外列盛하고 極者는 自外列衰하여 而生化循環하고 害則敗壞擾亂하여 而生化大病也라(六位之氣가 過極하면 반드시 해로움이 생기고 承氣가 아래에서 생겨 제압하여 過極하지 않게 한다. 따라서 制하면 미약하게 생했던 것이 변화되어 드러나 承氣는 스스로 밖에 盛함을 드러내고 過極했던 것은 스스로 밖에 衰함을 드러내 生化가 순환하게 되고 해치면 무너지고 질서가 깨져 요란하게 되어 만물의 생화가 크게 병들게 된다.”³⁰⁾고 하였다. 이는 制約을 하면 承氣가 밖으로 盛함을 列하고 過極했던 것은 衰함을 列한다고 해석한 것인데 일반적인 해석과는 거리가 있다.

8) 張介賓의 前之退而後之進說

29)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632.

30)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632.

張介賓은 相火之下 水氣承之 이하의 12구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此는 言六位之下에 各有所承이라 承者는 前之退而後之進也라 承之爲義有二하니 一曰常이오 一曰變이라 常者는 如六氣 各專一令하야 一極則一生하야 循環相承하야 無所間斷이라 故로 于六位盛極之下에 各有相制之氣가 隨之以生하야 由生而化하며 由微而著하야 更相承襲하야 時序乃盛이니 所謂陽盛之極 則陰生承之하며 陰盛之極 則陽生承之니 亦猶陰陽家五行胎生之義라 此歲氣不易之令 故로 謂之常이니 常者는 四時之序也라 變者는 如六元正紀大論所謂 小陽所至爲火生하고 終爲蒸溽은 水承相火之象也오 水發而雹雪은 土氣承水之象也오 土發而飄驟는 風木承土之象也오 木發而毀折은 金氣承木之象也오 金發而清明은 火氣承金之象也오 火發而嚙昧는 陰精承君火之象也라 此則因亢而制하며 因勝而復이니 承制不常 故로 謂之變이니 變者는 非時之邪也라 然曰常曰變은 雖若相殊나 總之防其太過 而成乎造化之用하니 理則一耳라 (이것은 六位의 아래에 각각 承하는 바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承은 앞의 것이 물러가게 하고 뒤의 것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承의 뜻은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常이고 하나는 變이다. 常은 六氣가 각각 하나의 기후를 전담하여 하나가 극한 상태에 이르면 하나가 생겨 순환하고 서로 계승하여 끊어짐이 없다. 따라서 六位가 盛極한 아래에 각각 서로 制約하는 氣가 쫓아가면서 생겨나 생겨나서는 변화하며 미약했던 것이 드러나 번갈아 가면서 계승하여 四時의 순서가 이루어지니 이른바 陽盛한 것이 지극하면 陰이 생겨 계승하며 陰盛한 것이 지극하면 陽이 생겨 계승하니 또한 陰陽家의 五行胎生의 뜻과 같다. 이것이 1년 기운의 바꿀 수 없는 政令이기 때문에 常이라고 하니 常은 四時의 순서이다. 變은 육원정기대론에서 말한 소양이 이를 때 火가 생겨나고 마지막에는 濕熱이 생기는 것은 水氣가 相火를 계승한 象이고, 水氣가 폭발할 때 우박과 눈이 내리는 것은 土氣가 水氣를 계승한 象이고, 土氣가 폭발할 때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은 風木이 土氣를 계승한 象이고, 木氣가 폭발할 때 나무가 훼손되고 부러지는 것은 金氣가 木氣를 계승한 象이고, 金氣

가 폭발할 때 날씨가 맑은 것은 火氣가 金氣를 계승한 象이고, 火氣가 폭발할 때 날씨가 어두운 것은 陰精이 君火를 계승한 象이다. 이것은 亢盛하기 때문에 제압한 것이며 왕성했기 때문에 보복한 것이다. 承氣가 제약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變이라고 이르니 變은 계절의 기후와 일치하지 않는 邪氣이다. 그러나 常과 變이 비록 다른 것 같으나 모두 태과를 방지하여 조화의 작용을 이루니 이치는 하나일 따름이다.”³¹⁾ 그리고 亢害承制의 마지막에서 “火極則寒生하고 寒極則濕生하고 濕極則風生하고 風極則燥生하고 燥極則熱生은 皆其化也라 (火가 극심하면 寒이 생겨나고 寒이 극심하면 濕이 생겨나고 濕이 극심하면 風이 생겨나고 風이 극심하면 燥가 생겨나고 燥가 극심하면 熱이 생겨나는 것은 모두 조화이다).”³²⁾ 하였다.

張介賓은 四時가 정상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亢害承制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하나의 기운이 盛極하면 이를 억제하는 氣가 아래에서 생겨나 盛極한 기운을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기운을 오게 한다는 것이다. 前之退而後之進이란 정상 상황에서 四時의 기후가 바뀌는 것은 承氣가 왕성한 本氣를 억제하여 本氣를 물러가게 하면 다음의 기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變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의가들과 내용이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한다.

그는 常과 變이 비록 다른 것 같지만 太過를 방지하여 造化의 作用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이치가 같다고 하였다.

9) 張琦의 承氣制則生化說

張琦는 『素問釋義』에서 相火之下 水氣承之의 12句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以承制言하면 則爲勝復之常이로대 而義不止此라. 火交于水면 乃能生土하고 水土合德하면 乃能生木하고 土得木達하면 乃能生金하고 木構乎金하면 乃能生火하고 金得火溫하면 乃能生水라. 五行相生은 必本承制之氣니 所謂制則生化也라(承氣가 제약하는 것으로 말한다

31)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p.826-827.

32)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828.

면 승복의 일반적 원리지만 의미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火가 水와 사귀면(水克火하면) 도리어 土를 생하고, 水와 土가 승복하면(土克水하면) 도리어 木을 생하고, 土가 木을 얻어 소통되면(木克土하면) 도리어 金을 생하고, 木이 金과 만나면(金克木하면) 도리어 火를 생하고, 金이 火를 얻어 따뜻해지면(火克金하면) 도리어 水를 생한다. 오행의 상생은 반드시 承氣가 제약하는 것에 근본을 두니 이른바 제약하면 生化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³³⁾

이 내용은 여름의 火가 작용할 때 承氣인 水가 水克火하면 子인 土가 생겨 長夏가 들어오고, 長夏의 土가 작용할 때 承氣인 木이 木克土하면 子인 金이 생겨 가을이 들어오고, 가을의 金이 작용할 때 承氣인 火가 火克金하면 子인 水가 생겨 겨울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相克작용을 통해 상생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계절이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근본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대단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우주변화의 원리』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天地 生物之正과 養神之道도 克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 우주운동이 木을 생하는 것을 보면 木의 형성은 金氣의 克으로써 形을 만들고 水가 土의 극을 받아서 木의 생명(神)을 보급함으로써 木을 생하게 되는 것이요, 木은 金의 극을 받음으로써 火의 神을 만들고 火가 水의 克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形을 만드는 것이다. 또 火가 水의 克을 받아서 土의 神을 만들고 土는 木의 克을 받아서 자기의 形을 만듦으로서 土가 생하여 지는 것이고, 土가 木의 克을 받아서 金의 神을 만들고 金은 火의 克을 받아서 金의 形을 만듦으로써 金을 생하는 것이요, 金은 火의 克을 받아서 水의 神을 만들고 水는 土의 克을 받음으로서 자기의 形을 만들어서 水를 생하고 水는 또다시 土의 克을 받아서 木의 神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³⁴⁾

相克과 相生은 일체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張琦는 承氣는 勝復에 의한 기후의 平衡 조절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四時의 相生이 承氣의 相克作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制則生化의 원리라고 하였다. 그는 항해승제이론을 통해 오행의 相生, 相克 이론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다.

10) 何夢瑤의 被克承父 制之平衡說

被克承父 制之平衡說은 克을 당하는 것의 자식이 父를 계승하여 父를 극하는 것을 억제하여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는說이다.

何夢瑤는 『醫編』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人但知生之爲生이요 而不知克之爲生이라 心火偏勝하면 則克肺金이나 若腎水充足하면 則火有所制하여 不但不克金이요 且溫脾以生金이니 餘藏同此論이라 此平人之無病이니 實由五藏互相克制 故로 不致偏勝爲災니 即『經』所謂亢則害(亢은 太盛也오 害는 極也라) 承乃制니(承은 相承也라 水之承金이니 如子之承父하야 火來克金하면 水乃制之也라) 刑生化라(火受水制면 則不特不克金이요 且益土以生金이라 化는 猶生也라) 若已病之人이면 則火盛者 不但刑金이요 且復潤水하며 肝脾皆被焚灼矣라 不治之오 而治其自然承制면 有此理乎아 乃醫者 見其熱極血瘀而 舌黑也하며 熱伏于內而外寒慄也하고 謂黑爲水色이오 寒慄爲水象이니 是火極而反兼水化하야 乃金之子 水 爲母報火之仇로 即承制亢害之理는 其說이 雖本前人이나 終欠의當이라(사람들이 단지 相生만이 생이 되는 줄 알고 相克이 相生이 되는 줄은 모른다. 心火가 偏盛하면 肺金을 克하나 만약 腎水가 充足하면 火가 制약을 당하여 火克金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比장을 따뜻하게 하여 金을 생하니 나머지 臟도 이와 동일하게 논할 수 있다. 이것이 平人이 병이 없는 이유이니 사실은 오장이 서로 克制하기 때문에 偏盛해서 재앙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니 바로 내경의 이른바 亢則害(亢은 아주 왕성한 것이고 害는 克하는 것이다) 承乃制(承은 계승하는 것이다. 水가 金을 계승하니 자식이 부모를 계승하는 것과 같아 火가 와서 克金을 하면 水가 火를 제압하는 것이다)니 형벌을 주는 것이 상생작용을 한

33) 張琦. 素問釋義.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pp.238-239.

34)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 2001. pp.112-113.

다는 것이다(火가 水의 제약을 받으면 火克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土를 보익해서 金을 생한다. 化는 生과 같다) 만약 이미 병든 사람이라면 火의 盛한 것이 金에 형벌을 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시 水氣를 마르게 하며 간장과 비장까지 다 불에 타고 지저지게 된다. 이것은 잘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연스럽게 承制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의사가 熱이 극심하고 어혈이 있고 舌黑하며 열이 안에 잠복되어 밖에서 추워서 떠는 것을 보고 黑은 水色이고 寒慄은 水象이니 이것은 火가 극심하여 도리어 水化를 겸하여 金의 자식인 水가 母를 위해 火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바로 承制亢害의 이치라고 한다면 그 설이 비록 앞서함에 근본하고 있으나 끝내 타당함을 잃고 있다.”³⁵⁾

하몽요가 相克이 곧 相生이라는 주장은 대단한 탁견이다. 그는 火克金을 할 때 金의 자식인 水가 承하여 水克火의 克制를 하게 되면 火克金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火生土, 土生金을 하여 오히려 火生金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水克火를 못하면 火克金을 하여 金에게 형벌을 가할 뿐만 아니라 金生水를 못해 水氣가 마르게 되며 火의 母子인 肝脾까지 모두 焚灼하게 되어 생리작용이 파괴됨으로 承制의 기전이 정상적인 생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熱이 極甚하면 火克金을 하고 金이 克을 당하면 潤水하여 舌黑, 寒慄 등의 증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火極而反兼水化한다는 주장과 火克金을 할 때 金의 子인 水가 母를 위하여 복수하는 기전을 亢害承制의 이치로 삼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지만 그가 承을 被克者인 母를 子가 계승한다고 하여 「六微旨大論」의 원문에 相克으로 承한다고 한 것을 相生으로 承한다고 해석한 것은 本意와 큰 차이점이 있다.

4. 結 論

亢害承制論은 자연계의 자율적인 平衡機轉이지만 한의학의 생리, 병리, 진단, 질병치료, 질병예방 등의 방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六微旨大論」에서 六氣의 主氣와 下承之氣를 기술하고, 이어서 亢則害承乃制라고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역대 醫家들의 주장과 의의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王冰은 氣盛承氣象見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六氣가 왕성하면 그것을 克制하는 承氣가 氣象현상으로 현실계에 드러나 기후가 자연스럽게 平衡을 유지한다는 주장이다.

2. 新校正에서는 終見下承之氣說과 甚者兼其下承之氣說을 주장하였다. 終見下承之氣說은 六氣가 처음에는 本氣가 작용하다가 끝에는 本氣를 克하는 下承之氣가 나타난다는 주장이고 甚者兼其下承之氣說은 鬱氣가 甚하여 그 기운이 폭발하면 下承之氣를 겸하여 나타난다는 뜻으로 모두 자연계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현상이다. 왕빙과 신교정의 이론은 자연계의 기후 평형 기전만을 언급하는데 국한하고 있다.

3. 劉完素는 反兼勝己之化說을 주장하여 자연계의 변화를 인체의 병리기전을 설명하는데 援用하였다. 이는 六氣가 偏亢하면 나를 勝하는 假象이 兼하여 나타나 均衡을 유지하려 하니 의사는 本質과 假象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항해승제의 이론을 처음으로 인체에 도입하여 병리기전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이론을 임상에 활용하게 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다.

4. 王履는 防之與克勝說을 주장하였다. 防之라는 말은 평소에는 六氣가 盛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작용을 하고 六氣가 過亢하면 承氣가 克勝하여 平衡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왕리의 정리에 의해 항해승제론은 한의학의 중요 학설로써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35)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p.8-9.

5. 虞搏은 護救承者之元氣說을 주장하였다. 元氣가 해치는 것은 바로 承氣의 母로 承氣의 元氣가 되기 때문에 承氣가 자신의 元氣를 보호하기 위하여 克制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항해승제의 배경을 밝힌 내용으로 중요 의의가 있으며 임상적인 활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6. 龔廷賢은 體用不同說과 得承之時自愈說을 주장하였다. 體用不同說은 근본원인이 되는 體와 이를 克하는 假象인 用이 不同하다는 說로 反兼勝己之化說과 같은 내용이다. 得承之時自愈說은 承氣가 작용하는 시간이 되면 병을 克制하여 저절로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항해승제론의 이론을 보충하고 임상에 활용 할 때 참고할만한 중요 내용으로 항해승제론의 내용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있다.

7. 馬蒔는 極則生承氣 至本位著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六氣가 왕성할 때 承氣가 생겨 자기의 계절에 이르러 드러난다는 說로 相克制約을 통해 平衡을 유지한다는 일반적인 내용과는 합치되지 않지만 主氣의 규칙적인 생성을 설명하는 데는 참고가 되는 說이다.

8. 張介賓은 前之退而後之進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六氣가 極盛한 상태에 이르면 이것을 克하는 承하는 기운이 생겨 극성한 기운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기운을 오게하여 이에 의해 四時의 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馬蒔의 주장과 함께 主氣의 규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좋은 참고가 되는 說이다.

9. 張琦는 承氣制則生化說을 주장하였다. 이 내용은 承氣가 本氣를 克하면 本氣의 子가 生하여 四時의 변화가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이는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주장하는 相克을 통해 子氣의 神이 만들어져 相生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說과 合致됨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장기의 이론은 相克을 통해 相生이 이루어진다는 오행원리의 중요 내용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

가 있다.

10. 何夢瑤는 被克承父 制之平衡說을 주장하였다. 이는 상극을 당하는 것의 子가 父를 계승하여 元氣를 克制하여 相互間의 平衡을 이루어 정상적인 變化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說인데 본문의 相克으로 承하는 내용을 相生의 承으로 해석하여 本意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상의 10개의 說은 모두 독창적이며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으로 天地의 질서를 이해하고 인체의 생리 병리를 이해하는데 모두 중요한 참고가 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5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201501730001).

References

- Gong JH. SooSebowon. Seoul. EuiSeongDang. 1993.
龔廷賢. 壽世保元. 서울. 醫聖堂. 1993.
- Ma S. HwangJeNaeGyeongSoMunJuJeungbalmi. Beijing. HakWonpublisher. 200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學苑出版社. 2003.
- Bang YJ, Heo GS. HwangJeNaeGyeongSoMunUnGiChilpyeongang hae. Beijing. InMinWiSaengpublisher. 1984.
方葯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 Oh G. HwangJeNaeGyeongSoMunOhJu. Beijing. HakWonpublisher. 2001.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 Woo D. Uihakjeongieon. Beijing. InMinWiSaengpublisher. 1981.

-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6. Yu SJ. HaGanUijip. Beijing. InMinWiSaengpublisher. 1998.
劉守眞.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7. Yun CY, Lee NG, Kim SH ed.. HyeonToWanYeok HwangJeNaeGyeongSoMunWangBingju(ha). DaeJeon. JuMinpublisher. 2004.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현토완역 黃帝內經素問 王永注(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4.
8. Wang Ri. UiGyeongSoHoejip. Nantong. GangSogwagipublisher. 1985.
王履. 醫經溯洄集. 南通. 江蘇科技出版社. 1985.
9. Chang GB. YuGyeong. Seoul. SungBosa. 1982.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10. Chang GB. ChangSsiYuGyeong. Seoul. SungBosa. 1982.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11. Chang G. SoMunseokui. Beijing. GwahakgisulMunHeonpublisher. 1998.
張琦. 素問釋義.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12. Ha MY. Uibyeon. Shanghai. ShanghaiGwahakgisulpublisher. 1982.
何夢瑤.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13. Han DS. The principle of changes in the universe. Seoul. DaeWonpublish. 2001.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 2001.
14. Hong WS. JungGyoHwangJeNaeGyeong. Seoul. DongYanguihakYeonGuwon.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